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호 [루게 제24788호] 주체104(2015)년 1월 10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시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시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리만성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평양시교외에 건설된 평양시버섯공장의 부지면적은 2만 4,800여㎡, 연 건축면적은 9,560여㎡이고 기본생산건물과 궁륭식야외재배호동으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에서 버섯공장을 잘 꾸리고 버섯재배도 잘하여 다른 단위들에서 배워갈수 있게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공장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



버섯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냉이숙을 적극 리용하는것과 함께 대용기질들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는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내열성수지병을 버섯생산용기로 리용하고있는것이 특별히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내열성수지병은 사용기간이 오래고 재생가능할 뿐아니라 종균, 배양, 재배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유용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버섯공장이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되였다고 하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평양시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는 공장으로서 되게 하여야

하여 1년 남짓한 사이에 버섯공장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하고 생산에 진입하였다.

생산방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수준이 높을뿐만아니라 버섯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버섯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맛있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조종실, 접종실, 배양실, 재배실, 기술준비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 기질성형장, 야외재배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각 도, 시, 군들에 버섯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건설하자고 하였는데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제일먼저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에 맞게 버섯공장을 훌륭히 일떠섬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조종실, 접종실, 배양실, 재배실, 기술준비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 기질성형장, 야외재배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버섯공장은 한해에 많은 량의 버섯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큰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버섯기질성형공정, 버섯무균공정, 버섯재배공정 등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물론 기업관리의 경영정보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였다고 하시였다.

버섯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좋은 품종들을 기본생산지표로 선정하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은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각 도, 시, 군들에서도 평양시버섯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섬에 힘쓰는것과 함께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버섯품종과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시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1 면 에 서 계 속

버섯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과학연구부문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버섯생산과 관련한 기술적지도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잘하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을 서로 교환할수 있게 컴퓨터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버섯재배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최첨단을

돌파하며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떠맡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버섯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평양시에서 뜻깊은 2015년의 첫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내놓고 자랑

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평양시버섯공장은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소개선전하고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이곳을 참관하게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버섯공장을 건설하면서 과학기술력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였다고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단위들을 찾을 때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업어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의 구상대로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한 건설자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의 정신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자신과 함께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감으로써 뜻깊은 율해에 인민생활항상에서 전변을 가져오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본사정치보도반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가 되어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일을 하자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새해벽두부터 온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불도가니가 되어 부글부글 끓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일제히 용암마냥 끓어오르는 속에 김철의 로동계급이 뜻깊은 올해 첫 축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고 3일에는 무산의 로동계급이 30만산대발파의 퇴성을 더했다.

각지 전투들은 새해에 들어와 첫 3일동안에만도 2만 수천의 석탄을 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찬바람제한 협동법에서 새해농사치비성과를 번일 확대하고있다.

각지 전력생산기지들과 두줄기 액체에서 그리고 사회주의대건설장 등 온 나라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뜻이 들어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찬만군민이 어깨 겶고 펼쳐나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정초부터 전에는 불수 없었던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철산봉에서의 30만산대발파, 사실 이것은 혈한것이 아니었다. 비록 힘은 들지만 무산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자체로 대형원추형파쇄장의 설비조립을 다그치면서 30만산대발파를 진행하여 철정광증산의 전망을 열어놓을것을 결의해나섰다.

대발파의 주역은 담당한 로선분장산 로동계급이 기발을 추켜들고나섰다.

발파장작과 2운수작장, 정머리분공장을 비롯한 온 련합기업소가 기술자들의 창조적투쟁을 강화하면서 대발파준비를 갖추어가는 로선분장산의 로동계급을 들심방면으로 지원하였다.

30만산대발파는 로선분장산만이 아닌 우리모두의 일이다! 이렇게 웅치며 무산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강추위속에서도 새로운 천공방법, 발파방법을 비롯한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3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철산봉에서 30만산대발파 소리가 메아리쳐올러던 그 시각 수천길지하의 전두들에서는 미더운 불꽃이 피었다는 심장이 지퍼올린 석탄증산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다.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와 마

찬가지로 덕천지구관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에 지난해와는 비할바 없이 높은 석탄생산량을 내세웠다.

목표는 방대했다. 목표수행을 위한 길에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덕천의 전투들은 누구도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반드시 비약적인 생산성과를 이룩할것이다. 너도나도 한마음을 하나로 굳게 뭉쳐 우리 련합기업소가 당장전 70%를 맞는 올해에 전국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내달리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자리에서 터친 덕천지구관련합기업소 책임일꾼의 심장의 토로, 이것은 그 혼자만의 투쟁정신을 안고 덕천지구관련합기업소와 순천지구청년관련합기업소의 전투들은 동발나투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새해의 첫 3일동안에만도 지난해 12월의 하루평균생산액에 비해 800t이나 되는 석탄을 더 생산해내는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석탄생산자들이 앙양된 기세로 화답해나섰다. 그들은 새해 첫날부터 호기발, 교대별, 작업반별사설비들의 증장정도의 불길높이 발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총력을 집중했다.

이에 뒤질세라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신행관인 철도운수 부문에서도 5.18사사고전선 선초과운송의 불길이 전제없이 타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뎠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찬만군민이 힘찬 전군을 다그치는 온 나라 곳곳에서 혁신의 소식이 날마다 연해연방 전해지고있다.

수령계수상위, 결사관철과 대적혁명용무의 불꽃은 정선철력 총괄발전시 청천강계단식

발전소와 고산파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비롯한 주요건설대상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작업물로 들며새워가는 군인건설자들과 동격대원들, 새해 첫작무리 주체비로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흥남과 남흥의 로동계급, 황해남도물길공사 증양지회부 일꾼들의 작전전투지휘와 김책공업총합대학 연구사들의 방주속에 1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물길건설자들과 그리고 뜻깊은 올해 정초부터 철강재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는 청천강계단식 로동계급...

한두개 단위나 지역, 부문이 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새로운 조건속으로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있다.

위대한 선군정권의 열화같은 애국의 호소로 찬만의 대오가 마음도 술겉도 발걸음도 같이 하며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안고 펼쳐나 총공격전을 벌이고 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대축전장으로 총진군해가는 불길의 찬만대오에 굽어지는 한결같은 지향이 있다.

사상도 술겉도 발걸음도 하나, 여기에 올해 승리의 힘의 원천이 있다!

본사기자 김지곤

모두가 영예로운 혁신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인민보안부대단 군인건설자들이 총진군의 발걸음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힘있는 방승선전, 직판선 등이 군인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전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판첩을 위함이라면 찬만산악도 떠돌길 군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비롯한 주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평양시리단청지부장 최승우동무의 심장은 크나큰 격정으로 높뛰었다.

그는 우리 련단이 올해에 도 한사팔같이 펼쳐나 많은 발전소건설을 제일 먼저 끝내자고 말했다.

신들매를 바싹 조이고

고산파수농장에 설치할 절 좋은 쇠그물을타라생산으로 새해 첫 전투의 힘찬 발걸음소리를 울린 쇠그물을 타라생산의 일꾼들과 증업원들이었다.

이곳 일꾼들은 첫 전투에 펼쳐나선 생산자들을 고무하기 위해 후방사업을 신속있게 벌리는 한편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사

«애국혁신으로 더 높이, 더 빨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새해 첫날, 찬 바람이 기승을 부리며 몰아치는 포전에 바뀐 듯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최창훈 덕련협동농장 청년분조장 김정민동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는 가슴에 받아안고 포전에 달려나온 그의 눈앞에는 분

조농사에서 최우수화를 낸 지난해의 잊지 못할 일들이 떠올랐다.

청년분조장으로 임명되어 첫 번째 새해를 맞던 지난해 초, 첫 전투에 들어가게 되었고, 분조원들에게 나선 김정민동무는

잠시 아무말도 없이 정다운 열감을 바라보았다.

최남철, 리금순, 김향란... 성격도 휘뚱도 서로 다르지만 청년분조라는 한지붕하에서 청춘의 포부와 열정을 함양해 치미운 동지들이었다.

아직은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농사일 을 하루빨리 익히기 위해 지새는 밤, 결은 밤길은 열매가 되었다. 농사일의 바쁜 속에서도 분조합숙을 번듯하게 꾸린 청년분조의 아름다운 꿈을 하나로 모아 분조의 휘황한 태양을 그린 전망도를

«이러한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뜻이 들어서려는 한결같은 마음속에 혁신자의 대열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청천강전역의 미더운 용사들

이러한 첫 전투에 진입하는 돌격대원들에게 착공의 첫날부터 지난해말까지 련단이 걸어온 자욱을 담은 편집물을 보여주었다. 그와 함께 혁신자소개모인, 축하모임을 련이 진행하였다.

자들이 걸어온 돌격대생활의 자욱자욱을 돌이켜보는 돌격대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올해에 발전소건설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결

히 조이고 생산에 달려나왔다. 증업원들의 가족들은 새해 첫 전투에 펼쳐나선 생산자들을 고무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노드도 불려주고 조립작업도 함께 하였다.

더 높이, 더 빨리 달리자,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속에 쇠그물타라생산에서는 날마다 혁신이 이루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오은별

«우리들의 열정을 두들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풍요한 농사작황을 마련할수만 있다면 아무리 일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농장일꾼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누군가의 익살스러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런데 방직청동무의 질풍은 자름을 더 많이 담아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건 왜?»

«오늘이 방동무 귀바친 날입니다. 혁신자중에서도 1등혁신자가 되자는것이 방동무의 결심 아니까요.»

포전에 웃음이 터졌다. 모두가 이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는것, 바로 이것이 청년분조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트락트르와 탈구지마다 김이 문문 나는 기쁨을 포전에 실어다가며 매일 계획을 150% 이상 수행하고도 성취치 않아하는 청년분조원들, 그들의 마음속에도 새해의 새 결심이 넘치고있으니 시대의 선구자로 살려는 청년분조원들은 일제히 포전에 비약한 내 조국의 모습이 비쳐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리건일

경쟁의 열풍속에 꽃피는 미풍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경쟁을 실시할 때 벌려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높이 발휘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 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조급만 더!»

«합, 그러다 언방이 꺼져들어가겠어요.»

«1소대 리광철동무의 <적재함>이 또 가동하기 시작했군. 저 동무의 승배심은 끝이 없네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거름생산에 펼쳐나선 기상수문국돌격대원들의 후더운 열기가 세포동원의 얼어든 대기를 밀어내고있다.

동트는 새벽부터 작업현장으로 달려나와 언제나 앞장에서 내달리곤 하여 대원들속에서 «조기작업대장»이라는 별호로 불리우고있는 대장 리정철동무의 팍호르는 얼굴에도 호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지난해에도 늘 그렇게 승배를 다루며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온 돌격대원들이다. 기상수문국돌격대에는 기쁨을 하며 올라가는 경쟁도표가

기상수문국돌격대원들

경쟁에 생겨났건다. 기상수문국돌격대가 조성하는 자연물관을 산을 끼고있어 물친그늘이 어둡고 거니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종에서 거름운반기간에는 소대별, 돌격대원소장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던 가운데 다른 동무들의 패는 대비도 안되게 특별히 큰 질풍이 나타나 <적재함>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렇다. 질풍의 거름은 너성들과 몸이 불편해지는 돌격대원들의 거름무기로 옮겨지곤 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하루일이 끝나면 의례히 밤길도룩 다른 동무들의 공수상대로 알아보며 스스로 일감을 찾아하는 대제군민 김철수동무, 부상을 당한 속에서도 자기가 일을 못하면 다른 동무들의 몫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며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투장으로 달려나온 강운철동무를 비롯하여 집단을 위해 바치는 돌격대원들의 소행은 끝이 없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나는 체육부문 일꾼들과 모든 체육인들이 당의 체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관차체육단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별명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여러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인 1959년(1970년) 8월 10일 조선체육단의 축구훈련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관차체육단을 로동계급의 체육단을 내세워주시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의 축구경기와 훈련모습도 보아주시면서 자신께서는 기관차체육단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고, 특기를 잘 살려 1급으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우리 조국을 체육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원군 상승업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작업반에서는 농장원들의 체육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치는 한편 명철과 후일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과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고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체육경기는 비상히 앙양된 작업반의 체육열의를 잘 보여주고있다.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한 데 어울려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경기들과 열면 응원하는 작

청년분조장의 새 결심

해운사를 본래있게 지어보시! 그렇게 한해를 보람차게 보내었다. 그러나 땀 청춘들의 열의와 왕가물이 지속된 속에서도 분조가 조직되어 20년만에 영광산에서 최우수화이라는 성공을 이룬 포부와 열정을 함양해 치미운 동지들이었다.

지나해를 돌이켜보는 김정민동무의 가슴속에 새로운 결심이 넘쳐났다.

새해 첫 전투에 들어가게 앞서 그는 분조원들에게 자기의 결심을 더 높였다.

«지난해 최우수화를 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앞서나가는 단원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 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압력을 생산하자라는것이 결심입니다. 어떻게습니까? 동무들!»

그의 불같은 호소에 청년분조원들이 한결같이 응성해나섰다. 농사차비에서부터 기발을 들고 앞장서 내달릴 결심을 안고 청년분조원들은 일제히 포전에 비약한 내 조국의 모습이 비쳐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리건일

우승의 자리를 양모하지 않는 비결

락랑구역약초관리소에서 일꾼들과 증업원들이 지난 7년동안 시적인 약초재배계획수행과정에서 언제나 우승의 자리를 양모하지 않고 있다.

비결은 무엇인가.

일부 사람들은 이곳 약초관리소에 서 좋은 품종의 종자들 많이 확보하는것과 함께 약초비판리에 힘을 쏟은 결과에 이룩된 성과라고 말하고있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들이 중시한 문제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관료관리도 잘하여야 하겠습니까.»

몇해전 3월 어느날 락랑구역약초관리소에서는 긴급회의가 있었다.

증업원들은 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목적이 아마도 한해 약초농사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좋은 품종의 종자를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서일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이들은 관리소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땅을 약초재배지로 받았다.

씨뿌리기철인 봄계절에 밭을 옮기다나니 관리소에서는 달라진 토양조건에 적합한 종자를

관료관리도 잘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더 많은 약초를 수확하기 위해 펼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분발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렇게 락랑구역약초관리소에서는 모든 증업원들을 토지개량사업으로 적극 불러일으켜 지난 7년간 련이 시적인 약초재배계획수행총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토지개량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같은 종자를 가지고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수확을 내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락랑구역약초관리소 일꾼들과 증업원들의 앞으로의 사업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로동계급체육단의 영예를 빛내이며

기관차체육단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로동계급체육단의 역년 기상을 남김없이 피하시었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의 손길에 기관차체육단은 순풍하는 체육단으로 자라났으며 날과 달을 이어 자랑찬 경기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신심들이는 열정을 가슴깊이 이곳 일꾼들과 감독, 선수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과 같은 크나큰 상심의 아픔을 당하게 되었다.

12월의 그 날에 일꾼들과 감독, 선수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전에서 로동계급체육단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어주시었다

증업원들의 열의를 한껏 돋구어 주었다.

작업반에서는 언제나 모든 농장원들이 빠짐없이 참가할수 있도록 경기들을 다양하게 조직하고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농장원들이 누구나 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가지의 체육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경기에서 승부를 겨루던 그 열정은 혁신의 불길로 타오르고있다.

이들은 오늘날 대중체육활동을 통해 집단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

로동농사원 한성문

기들에서 새 기록들이 세워지고 선수보유자들이 줄지어 배출되는 속에 제조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기관차체육단의 선수들은 아시아, 세계선수보유자로 당당하게 자라났으며 특상, 메달, 예술품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었다.

일꾼들이 김재성, 김성준, 로철의 동무들은 감독, 선수들의 언제나 로동계급체육단의 한성원이라는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기마다 금메달을 쟁취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높은 수준에서 대담하게 목표를 세우고 훈련성과를 확대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국제경기는 물론 국제경기들에서 새 기록들이 세워지고 선수보유자들이 줄지어 배출되는 속에 제조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기관차체육단의 선수들은 아시아, 세계선수보유자로 당당하게 자라났으며 특상, 메달, 예술품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었다.

일꾼들이 김재성, 김성준, 로철의 동무들은 감독, 선수들의 언제나 로동계급체육단의 한성원이라는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기마다 금메달을 쟁취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높은 수준에서 대담하게 목표를 세우고 훈련성과를 확대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국제경기는 물론 국제경기

지 혁 철



영웅의 — 동대원구역 김창환 동무의 새겨져가고있다. —

